

우리의 신체가 사랑의 받을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내면화 해 왔다. 많은 여성과 소녀들은 극단적으로 외롭고 신체접촉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릴 권리가 있는 사랑의 기쁨과 다수 여성 문화와 비교해서 다른 신체와 기능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둔 장애인 성 문화를 열망한다.

우리는 다름과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한다.

1. 여성들은 서로 성생활, 욕망, 바램, 그리고 알고 싶은 점을 토론했기 위한 안전한 그들만의 장소를 갖는다.

2. 장애 여성들과 소녀들은 모든 장애 여성들이 성적으로 활동적이고 매력적이며 사랑행위를 다양한 방법으로 주고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내용을 홍보할 수 있는 훈련을 포함해서 여성 보건 서비스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훈련을 제공 받아야 한다.

통신 기술 접근권

우리는 장애여성들이 적절한 정보 통신과 주류 통신 라인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거부 사라질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요구한다. 1) 남녀 장애 아동과 성인들이 광고를 포함한 대중매체에 통합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나타나는 그들의 모습은 긍정적이고 배려적이며 그리고 삶을 고양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번역등 장애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공공 교육 캠페인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통신의 모든 기술적인 방법들이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가난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 여성들을 위한 통신의 기술적인 방법 개발에 최우선이 주어질 것을 촉구한다.

유엔 현장

우리는 나아가 유엔과 다른 국가들이 장애여성들과 소녀들이 관련된 모든 기존의 현장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와 관

련된 방법을 모니터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유엔 산하 기구들이 관련된 비정부 민간 기구들과 함께 이러한 노력을 효과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장애, 성문제, 인권 그리고 비정부 민간조직과 관련된 여러 각각의 현안들을 다루는 조직간의 특별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움직임들은 지역, 국가, 지역권 그리고 국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유엔과 기타 관련 기구들이 다음 사항과 관련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기존 현장을 해독하기 쉬운 언어, 알기 쉬운 형식, 그리고 각 지역의 언어들을 사용해 널리 알려야 한다.

조사, 연구 그리고 연구 사례 등을 이용해 장애여성들과 소녀들에 관련된 새로운 지식을 쌓아 나가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모든 단계의 의사 결정자들간에 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고무해야 한다.

비정부 민간조직과 함께 장애여성들과 소녀들의 훈련을 위한 정책 이행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세미나의 공동후원을 활성화해야 한다.

주장

우리는 이 자리에서 장애소녀와 여성들의 지구촌 네트워크를 설립할 것을 다시 확인하다.

베데스다 매릴랜드 미국, 1997 6월 20일

대회사

힐러리 로드햄 클린턴(명예회장, 미국 대통령 부인)

친구들에게

명예회장으로 세계 장애여성 지도자 포럼에 참석한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에게 환영인사를 보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제4차 유엔 여성대회로부터 울려 퍼진 한가지 메시지가 있다면 인권은 여권이며 여권은 인권이라는 것입니다.

북경에서 채택된 행동강령을 시행으로 옮기려는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대회에 함께 모임으로써 여성교육의 혜택은 교실과 학교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보다 견고한 가정, 더 나은 건강, 영양공급, 임금 그리고 정치적 참여에 까지 그 혜택은 미치는 것입니다. 전세계를 여행해본 결과, 저는 소녀와 여성에 대한 투자가 지역사회의 변화를 돕고 그 지역사회는 다시 보다 큰 사회를 바꾼다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어떠한 단일 투자가 여성이나 개발도상국에 대해 만병통치약이 아닌 한, 차별과 불평등이 여성에 대해 광범위한 차원에서 존재하는 한 안정되고 번영된 세계는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는 특히 장애여성들에게 사실입니다. 장애를 가진 여성들을 위한 목소리를 제공하려는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나라 전체와 전세계에 걸친 공동체를 자극해 그들이 여러분을 따라오기를 희망합니다.

즐겁고 성공적인 회의가 되기를 빕니다.

백악관 워싱턴, 97년 6월 15일

환영사

쥬주디스 휴만(특수교육과 재활서비스국 차관보)

수전 대니엘스(미국 사회보장국 공동위원장)

포럼 참석자들에게

국제 장애여성 리더십 포럼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사상 처음 열리는 국제 장애여성 리더십 포럼이 열리는 것에 대해 우리는 매우 들떠있습니다. 워싱턴을 처음으로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는 분들에게 이 나라의 수도에 오신것을 환영하며 이 유례없는 행사에 오시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도록 한 것은 제4차 유엔 세계여성대회의 베이징에서 보여진 지도력이었습니다. 이 포럼에서 우리는 전세계에 걸쳐 장애를 가진 소녀와 여성들이 지도자로 부각될 수 있는 사회와 구조를 만들어나갈 것인가에 대해 계속 대화를 가질 것입니다.

이 대회의 형식은 장애를 가진 소녀와 여성들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정당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킬 분야에 대해 다루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대회에 대한 지원은 비정부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미국 정부 산하 20여개 기관들의 협조로부터 나왔습니다.

장애여성으로서, 우리는 소녀와 여성들이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어떠한 기회들이 있어야 하는지를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이러한 기회들이 가능한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애를 가진 소녀와 여성들을 포함하여 소녀와 여성 지도자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이 질 높은 교육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닷새 동안의 이 포럼에 우리가 모여 장애를 가진 소녀와 여성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이 이 포럼을 계기로 지도자로서의 여러분의 역량을

계속 계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한 개인에게 좋은 교육은 본질적인 가치외에도 공정한 임금을 받는 좋은 직업으로 우리를 자연스럽게 이어준다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질 높은 교육에 접근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루어낸 나라들조차도 좋은 직업을 얻기란 당사자가 여성이면 아직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장애를 가진 여성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애여성들은 교육 뿐만 아니라 회의적이거나 무관심하거나 드러내놓고 적대적인 노동시장에서 협상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창의성과 기술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비장애 남성들이 당연한 권리로 여기듯이, 장애를 가진 소녀와 여성들도 사회의 주류에 완전한 참여 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가졌다는 믿음을 갖기 위해 스스로 힘을 갖추어야 합니다. 장애를 가진 여성으로서 우리는 연대를 이루고 우리 문제의 해결 방안들을 찾아내기 위한 조직망을 이루는 기술을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회 참여를 막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일해 나가야만 합니다.

일주일 뒤에 이곳을 떠날 때 더 많은 지식과 더 나아진 기술, 새로운 동료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그리고 당신의 지역사회 뿐 아니라 전세계에 살고 있는 장애 소녀와 여성들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의 나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포럼이 여러분들에게 재미있고 잊을 수 없는 것이 되기를 희망하며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포럼이 더 많이 열리도록 영가를 불어 넣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공적인 포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소녀와 여성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계속 일할 것입니다.

장애여성의 비전 외침

- 북경 세계여성대회 비디오 내용 -

번역 : 홍 성 희 (빛장을 여는 사람들 회원)

이 내용은 연년 국제장애여성리더쉽포럼에서 보급된

'95 제4차 북경장애여성대회 중의 장애여성들의 활동 기록비디오에 있는 자막입니다.

그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옮겼습니다.

(외침)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여성입니다.

(외침) 우리도 느끼고 생각합니다.

(외침) 우리가 다른 점은 단지 보지 못하거나 걸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외침)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외침) 우리는 접근권을 원합니다. (박수)

장애여성 : 전망과 목소리(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나레이션) 1995년 9월, 제4차 세계여성대회와 NGO포럼이 중국 북경에서 열렸다.

(나레이션) 장애를 가진 여성들은 처음으로 탄탄한 조직력을 선보였다.

(나레이션) 장애여성들과 몇몇 국제장애단체들이 10개월 동안 노력한 성과였다.

(나레이션) NGO포럼 시작 하루 전, 그들은 북경에서 장애여성에 관한 첫번째 국제 심포지엄을 가졌다.

(나레이션) 25개국을 대표하는 200명의 장애여성이 중국에 모였다.

(나레이션) 수잔 시걸은 주최자 중 한 명이였다.

우 “우리의 꿈을 이룰 때가 왔습니다.”

“전세계에서 모인 장애여성들과 동지들은 UN여성회의에 반드시 장애여성이 포함되도록 할 것입니다.” (박수)

“우리의 권리와 장애여성으로서의 존엄성을 쟁취할 것입니다.”

(나레이션) 행동강령은 UN여성회의에서 만든 문서이다.

(나레이션) 그것은 정부와 조직 그리고 개인이 여성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지켜야 할 지침으로서 건강, 교육, 취업 등 12부문으로 나뉜다.

(나레이션) 매해 회의 이전에 열리는 모임들에서 초안이 작성된다.

(나레이션) 장애여성의 문제가 많은 경우 배제되었기 때문에 올해의 목표는 장애여성에 관한 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이었다.

우 “장애는 참을 수 있지만 인권의 무시, 동등한 기회의 박탈, 그리고 제도적 차별은 참을 수 없으며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레이션) 장애여성들은 심포지엄에서 NGO포럼과 UN회의의 25,000 비장애여성들과 매스컴을 대상으로 정책적 과제들을 선언했다.

우 “장애소녀들 역시 소녀들이며 그들의 비장애 자매들처럼 소망, 꿈, 목소리 그리고 그들만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소녀는 튼튼하고 건강하며 자긍심있는 장애여성이 될 권리가 있습니다.”

우 “장애 여성은 부모가 될 권리가 있습니다.”

우 “제 이름은 미누 시캔드입니다.”

“캐나다에서 왔습니다.”

“산출된 모든 수입과 여성을 위한 경제 발전 프로젝트는 장애여성에게 접근권과 사용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우 “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누구라도 장애 여성의 권리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는 북경을 떠날 수 없을 것입니다.” (박수)

♪ 앞으로 나아가리라...♪

(나레이션) NGO포럼 개막식에 북경의 노동자 스타디움은 여성들로 가득 찼다.

(나레이션) 세계 곳곳의 수많은 여성들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중국에 모여 단결의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나레이션) 회의 몇 달 전부터 미국과 전세계 장애여성들은 회의 주최 측에 대한 로비를 통해 회의 현장과 워십이 모든 종류의 장애를 가진 여성들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나레이션)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동과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접근권은 큰 문제로 남아있었다.

우 “예를 들어, 아침에 라틴 아메리카에 관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꼭 가보고 싶었는데, 그곳이 4층이라서 사람들이 저를 운반해야 했어요.”

“그건 무척 위험한 것이지요.”

우 “저는 귀머거리입니다.”

“우리들을 위한 통역이 없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귀머거리이지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해야만 해요.”

(나레이션) 회의자료는 맹인 또는 약시거나 난독증인 사람들을 위해 점자, 녹음 테이프 또는 대형 활자의 형태로 제공되지 않았다.

(나레이션) 장애 캠프는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그곳에 가는

길은 진흙과 돌 때문에 험했다.

(나레이션) 장애여성들은 접근권에 대한 항의 시위를 하였다.

(나레이션) 세계여성대회에서 어떤 집단이 지정된 시위 장소를 벗어나 항의 시위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우 “우리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줄 사람은 필요 없어요.”

“우리도 스스로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제외되거나 주변화되고 싶지 않아요.”

우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장애소녀가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장애여성은 비장애여성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폭력에 희생된다는 점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장애여성의 문제가 곧 여성의 문제라는 것에 대해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매애로써 단결해야 합니다.”

“단지 경사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여성의 문제를 이야기하자는 것이고 자매로서, 우리가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자는 것입니다.”

(나레이션) 시위는 효과가 있었다.

(나레이션) 모든 요구조건이 충족되지는 않았지만, 텐트는 보다 접근 가능한 위치로 옮겨졌고 경사도가 마련되었으며 몇개의 워샷이 장소를 옮겼다.

(나레이션) 시위는 또한 모든 참가자들의 의식을 깨우쳤다.

(나레이션) 미국의 UN 대사 매들린 올브라이트는 장애 텐트에서 장애 여성의 투쟁을 인정하는 연설을 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방송되었다.

(나레이션) NGO포럼은 장애여성에게 서로를 만나고 비장애여성들과

동맹을 맺고 미래를 위한 행동을 계획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나레이션) 발표된 이야기들과 논문들은 장애여성들의 공통적 관심사와 함께 그들의 다양성을 알게 해주었다.

(나레이션) 일본에서는 장애여성들이 위생보호법에 맞서 싸우고 있다. 이 법은 장애아동의 출산을 막기 위해 선택적 임신 중절을 실시하려는 것이다.

(나레이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출산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불임수술을 받기도 한다.

우 “제가 20살 때 이 법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제 친구가 그러더군요. 이 법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차별하는 나쁜 법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했고, 소위 정상적인 사람들을 닮으려고 노력했죠.”

“그 때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장애인은 당연히 태어나지 말아야 해. 장애를 가졌으니까.’”

“그런데 저처럼 뇌성마비 장애인 친구 울랄라를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제가 있는 그대로가 좋다고, 저에게 잘못된 것이 없다고 말해주었지요.”

“울랄라와의 만남은 저를 변화시켰어요. 있는 그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후로 저는 제대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위생보호법은 잘못된 법이었고, 저는 무슨 조치를 취해야 했어요.”

우 “제 이름은 나오미 루스 에시아바입니다.”

“저는 오늘 장애여성의 힘과 의사결정권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아프리카 쉐냐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데, 이는 우리의 문제가 같기도 하지만 우선권에 있어 다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 “제 이름은 진 맥코비입니다.”

“저는 아메리칸 인디언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ADA, 즉 미국 장애 법안은 미합중국만의 법이라서 인디언 보호 구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 “오늘 저는 장애여성운동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니카라구아에서는 장애여성운동이 1993년에 13명의 국소마비 여성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그 때 사람들은 우리가 미친 여자들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우리는 50명으로 늘어났고 국회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나레이션) UN회의를 통해 장애여성들은 행동강령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나레이션) 강령에는 교육, 취업, 건강, 사회복지 그리고 정보의 부문에서 결핍들을 제거할 것이 강조되었다.

(나레이션) 북경대회에서 장애여성들은 인권을 위한 투쟁에 있어 혼자가 아니며 힘을 합쳐서 모든 여성들과 모든 장애인들을 위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노래>

♪ 당당하게 걸으리라 당당하게 걸으리라 뒤돌아보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 힘차게 노래하리라 힘차게 노래하리라 힘차게 노래하리라 뒤돌아보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 아낌없이 사랑하리라 아낌없이 사랑하리라 아낌없이 사랑하리라 뒤

돌아보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 경계를 허물리라 경계를 허물리라 경계를 허물리라 뒤돌아보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 앞으로 나아가리라 앞으로 나아가리라 앞으로 나아가리라 뒤돌아보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 당당하게 걸으리라 당당하게 걸으리라 당당하게 걸으리라 뒤돌아보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 힘차게 노래하리라 힘차게 노래하리라 힘차게 노래하리라 뒤돌아보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자 료 목 록

정리 : 정형란, 김선옥

제목	저작권/출판처	분량
LAPA SPECIAL STATION-HUMAN RELATIONS AND DEVELOPMENT CENTER	인간관계 개발센터	FUNDO SOCIAL DE SOLIDAPIEIDADE DO ESTADO SAO PAULO (BRAZIL) 4p
DEVELOPMENT INITIATIVES AND SERVICES(DIS)	개발창안과 서비스	1996.1 4p
The Me in the Mirror by Connie Panzarino	<거울 속의 나> 소개 및 주문서	Seal Press 1p
Technical Assistance Center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Partnership Projects(TA Center)	전문개발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위한 기술 지원소개서	8p
BOOK INTRODUCTION <I Know I Can Climb the Mountain>의	미 장애인법 통과에 기여한 책 소개	Mountain Books & Music
Forum Resources for Web Page Accessibility	국제장애여성 포럼 인터넷 웹 페이지	
Date Line	데이트 라인 (미국 장애인 단체)	1997, 여름
밝은 미래 : 유아, 아동 관련 건강관리를 위한 지침 소식지		

제목	저작권/출판처	분량
Background Notes on Selected Participants	포럼 참가자들에 대한 약력	
Aids*Applications for Independent Living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보조기와 장치의 상품소개책	MAXIAIDS
The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Rights of Disabled People	장애인 권리에 대한 제2회 국제회의	1997.9.20-24
THE TECHNICAL ASSISTANCE CENTER FOR PDP	전문개발파트너십을 위한 기술 지원센터	
THE NATIONAL INSTITUTE ON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RESEARCH(USA)	전국 장애와 재활을 위한 연구협회 (리플렛)	
WWDA	호주 장애여성 리플렛	
Across Borders-Women with Disabilities Working Together by Diane Driedger	<경계를 넘어서> 함께 일하는 장애여성(책소개)	1p

제목	저작권/출판처	분량
1997 SPRING CATALOG	1997년 봄 장애여성을 위한 전문 서적 출판사 출판물 소개 Spinsters Iuk	
USDA-U.S. Department of Agriculture Office of Communications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	미국 농업부 리플렛 ILO 리플렛	
Target's Mission	미 농업부 산하기술에 대한 이해와 이용으로 고용촉진을 위한 센터 리플렛	
Beyond Hunt Valley: Research on Women's Health for the 21st Century	21세기를 향한 여성건강에 관한 연구	
Disabilities Studies and Services Center(DSSC)	장애연구와 서비스센터 소개	1p.
I'm printing Our Image	우리의 이미지를 새기자(국제 장애여성들의 글모음) 소개와 주문서	1p.

제목	저작권/출판처	분량
Who Can You Trust With Your Independence?	당신의 독립을 위해 누구를 믿겠습니까?(휠체어 조립 도구 리플렛) HASELTINE SYSTEMS CORPORATION	
Mental Disability Rights International(MDRI)	국제 정신장애인 권리 소개서	1p
CALL FOR MATERIAL THAT PROMOTE GENDER EQUIT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장애인의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프로그램, 실천운동, 상담 등을 알려주세요 WEEA Equity Resource Center	1p
Physical Fitness and Sexual Fitness	건강관리와 성생활을 위한 상품소개 Body and Soul Productions	3p
The 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arent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제1회 장애를 가진 부모와 가족에 대한 국제 회의 소개 1997. 10. 23-26 샌프란시스코	
WOMEN WITH DISABILITIES PUBLICATION LIST AND ORDER FORM	장애여성 관련 출판물 목록과 주문서	3p

국제 주요 관련단체 주소록

정리: 홍성희

◆ 국제 노동 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4, route des Morillons CH-1211 Geneva 22, Switzerland

Tel: (41-22) 799-6832

Fax: (41-22) 798-8685

<동주소>

- ILO 개발과 기술 협동부 개발정책지부 개발도상국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Programme on Women in Development, Development Policies Branch, Department of Development and Technical Cooperation, International Labour Office
- ILO 여성 노동자 문제 특별 고문 Special Advisor on Women Workers' Questions, International Labor Office
- ILO 직업 재활 지부 Vocational Rehabilitation Branch, International Labor Office
- ILO 창업과 경영개발 지부 Entrepreneurship and Managment Development Labor Office

◆ UN 교육·과학·문화 기구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7, place de Fontenoy 75352 PARIS 07SP, FRANCE

Tel: (33.1) 45 68 11 37

Fax: (33.1) 40 65 94 05

<동주소>

- UNESCO 특수교육부 Special Education, UNESCO

◆ 국제 보건 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20, avenue Appia CH-1211 Geneva 27, Switzerland

Tel: (41-22) 791-3656

Fax: (41-22) 791-0746

<동주소>

- WHO 재활 부서 Rehabilitation Unit, WHO

◆ 모빌리티 인터내셔널 USA

Mobility International USA (MIUSA)

PO Box 10767 Eugene, OR 97440

Voice/TDD: (541) 343-1284

Fax: (541) 343-6812

e-mail: miusa@igc.apc.org

<동주소>

- MIUSA 클리어링하우스 프로젝트 (장애인을 위한 각종 정보교환과 교환학생이나 자원봉사제를 통한 교육적 기회 제공) Clearinghouse Project, c/o MIUSA

◆ 베일러 의학 대학 신체 의학·재활과 장애 여성 연구 센터

The Center for Research on Women with Disabilities

Department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Baylor College of Medicine

3440 Richmond Ave. Suite B Houston, Texas 77046

Voice/TDD: (713) 960-0505

Fax: (713) 961-3555

1-800-44-CROWD (1-800-442-7693)

e-mail: mnosek@bcm.edu

Web: <http://www.bcm.tmc.edu/crowd/>

◆ 국제 장애 교류와 연구 프로젝트와 참여단체

international disability exchanges and studies (ideas) project (ideas 2000)

- 재활과 연구 협회 독립적 삶에 대한 연구 활용 프로그램 ILRU/TIRR

Lex Frieden, Cynthia Dresden

Independent Living Research Utilization Program, The Institute for Rehabilitation and Research, 2323 S. Shepherd, Suite 1000, Houston, TX 77019

Tel: (713) 520-0232

Fax: (713) 520-5785

e-mail: cdresden@ilru.org

- Monroe Berkowitz, Paul O'Leary

Bureau of Economic Research, Rutgers University, New Brunswick, NJ 08903

Tel: (908) 846-1057

Fax: (908) 932-8383

e-mail: berkowi@rci.rutgers.e여

- 모빌리티 인터내셔널 (Mobility International)

Susan Sygall
P.O. Box 10767, Eugene, OR 97440
Tel: (541) 343-1284
Fax: (541) 343-6812
e-mail: info@miusa.org

Cindy Lewis
P.O. Box 3940, Berkeley, CA 94703
Tel: (510) 848-9808
e-mail: clewis@igc.apc.org

◆ 국제 재활(Rehabilitation International)

Susan Parker, Barbara Duncan, Kathy Marchael
25 E. 21st St., New York, NY 10010
Tel: (212) 420-1500
Fax: (212) 505-0871
TDD: (212) 420-1752
e-mail: rehabintl@aol.com (Duncan: bjdnycla@aol.com)

◆ 휠드 모빌리티 센터(Wheeled Mobility Center)

- Ralf Hotchkiss
School of Engineering,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1600
Holloway Avenue, San Francisco, Ca 94132
Tel: (415) 338-7734
Fax: (415) 338-1290
- Peter Pfaelzer (동주소)
Tel: (415) 338-2878
Fax: (510) 841-1238
e-mail: pfaelzer@sfsu.edu

◆ 세계 장애 협회 (IDEAS 프로젝트 본부)

World Institute on Disability
- Suzanne Reier, Kathy Martinez, Carmen Velasquez
510 16th St., Suite 100, Oakland, CA 94612
Tel: (510) 251-4328/4326
Fax: (510) 208-9494
e-mail: suzanne@wid.org 또는 Kathy@wid.org 또는 carmen@wid.org

◆ 전국 장애와 재활 연구 협회

National Institute for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Research
- Paul Ackerman, Director

International & Interagency Activities, 60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02-2600
Tel: (202) 205-8468
Fax: (202) 205-8515
e-mail: Paul Ackerman@ed.gov

◆ 국제 장애인협회(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DPI))

- 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Headquarters:
101-7 Evergreen Pl. Winnipeg, Mb RSL 2T3
Tel: (204) 287-8010
Fax: (204) 453-1367
e-mail: di@dpi.org
Internet: http://www.dpi.org

◆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장애여성

Women with Disabilities Australia(WWDA)
P.O Box 229, Dickson ACT 2602
Tel: (06) 242-1310
Fax: (06) 242-1314
TTY: (06) 242-1313

◆ 세계재활협회(Rehabilitation International(RI))

25 East 21st Street New York NY 10010, USA
Tel: (212) 420-1500
Fax: (212) 505-1871
TDD: (212) 420-1752

◆ 덴마크 장애여성협회(Danish Women with Disabilities)

- Chairwomen Janne Sander Knudsen
Gadekaervej 28, DK-2500 Valby, Denmark
Tel: (445) 36 16 85 41
Fax: (445) 36 16 85 88
e-mail: Vanne. post. tele. dk

◆ 세계 장애 협회(World Institute on Disability)

510 16th Street, Suite100 Oakland, California 94612-1500
Tel: (510) 763-4100
Fax: (510) 763-4109
TTY: (510) 208-9493

저희 참가단이 힘겹게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큰 힘이
되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장애여
성 문제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강남종합사회복지관

곰두리차량봉사대

김성연님

김은정님

김진옥님

다솜공동체

맹인선교회

미스터 피자 동소문지점 김영옥님

박영일님

서정아님

오선환님

오정미님

이윤희님

이정을님

정유진님

중대 손짓사랑

프리아드

하삼장애인종합복지관

한벗회

흥성희님

훈우리

각량반 자료

여성장애우·첫번째 공청회

인권 자료실		
분류명	분류기준	자료번호
	A4	19

한국사회의 여성장애우 문제와 해결책

일시 : 1995. 4. 7(금) 오후 2:00 ~ 5:00

장소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강당

주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후원: 한국여성NGO위원회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521-5364)

한국사회의 여성장애우 문제와 해결책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장애우분과 '빛장을 여는 사람들'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으로 부터 차별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여성이면서 동시에 장애를 지니고 있는 여성장애우들은 이중의 고통을 감수하며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우 문제는 오랜시간 동안 여성계에서도 장애계에서도 논의의 영역에 놓여있음으로 인해 그 실태나 현황 등 기초자료 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여성장애우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알려져 왔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간헐적으로 알려질 때마다 이를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만한 창구가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그 뒤를 잇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지니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점들이 그러하듯이 여성장애우의 문제 또한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임의 구성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늦춰질 수 없다는 의지들이 한데 모아져, 지난해 12월 15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여성장애우분과 '빛장을 여는 사람들'이 결성됐습니다.

사회로부터 여성과 장애우를 향해 드리워진 다양한 형태의 걸림돌들을 하나씩 거둬나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빛장을 여는 사람들(이하 빛장)'은 여성장애우 문제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모임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회원은 현재 장애우 아홉명·비장애우 네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여성장애우 문제에 관심있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빛장'은 지난 해 12월 첫 모임을 가진 이래 지금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본 연구소 강당에서 세미나를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과 장애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의 틀을 지니기 위해 꾸준히 연구하고 있으며, 보다 알찬 내용을 지니기 위해서 관계분야의 전문가도 초청해 강연도 들을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또한 한국여성NGO위원회 산하 장애인분과로서의 활동도 병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오는 9월 북경에서 열리는 세계여성NGO포럼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여성장애우의 실태를 알리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흐름속에서 마련된 이번 공청회는 저희 '빛장'이 내딛는 첫걸음이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여성장애우 문제를 주제로 한 첫번째 공청회이기도 합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여성장애우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이 보다는 우리나라의 여성장애우들의 현주소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빛장'은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여성장애우들이 자주적이고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찾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권을 회복토록 하는데 힘을 모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995. 4. 7

'빛장을 여는 사람들' 일동

차례

주제발제

한국사회에서의 여성·여성장애인의 차별구조
신혜수(한국여성의 전화 대표·전주한일신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사회에서의 여성장애인의 실질적 차별과 과제
방귀희(한국장애인문인협회 회장·방송작가)

토론발제

실태조사를 통해 본 여성장애우의 차별양상
김미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장애우분과원)

성폭력과 여성장애우
박숙경(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도개선 담당)

사례발표

뇌성마비장애인 강간사례
권나양(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원)

여성장애인 구타사례
정춘숙(한국여성의 전화 상담인권부장)

한국사회의 여성장애우 문제와 해결책에 관한 공청회 일정표

- 인사말 : 김성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 · 한신대 기독교교육학과 교수)
- 격려사 : 김정자 정무 제 2차관 (전 한국여성개발원장)
- 슬라이드 상영 : '빚장을 여는 사람들'
- 사회자 :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무국장)
- 주제발제
 - 한국사회의 여성 · 여성장애인의 차별구조
 - 신혜수(한국여성의 전화 대표 · 전주한일신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 한국사회에서의 여성장애인의 실질적 차별과 과제
 - 방귀희(한국장애인문인협회 회장 · 방송작가)
- 토론발제
 - 실태조사를 통해 본 여성장애우의 차별양상
 - 김미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장애우위원회 회원)
 - 성폭력과 여성장애우
 - 박숙경(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도개선 담당)
- 지정토론
 - 나운환(한국장애인재활협회 과장)
 - 김대성(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사무국장)
- 사례발표
 - 권니양(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원)
 - 정춘숙(한국 여성의 전화 상담인권부장)
- 종합토론

◆ 주제발제

한국사회에서의 여성장애인의 실질적 차별과 과제

방귀희(한국장애인문인협회 회장 · 방송작가)

한국사회에서의 여성장애인의 실질적 차별과 과제

방귀희(한국장애인문인협회 회장·방송작가)

1. 동등

여성장애인문제로 공청회가 열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낯설어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관심있어할 것이다. 처음있는 일이니 말이다. 여성장애인 문제는 무엇일까?

성적 차별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구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구분에서 약자가 된 여성은 지구 인구의 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대상이 되었고 드디어 여성인권운동으로까지 몰고 가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페미니즘이 커다란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런 상황과 비슷한 것이 장애인 문제이다. 물론 장애인 문제는 그 농도가 더 짙고 더욱 심각하다. 그래서 장애인 문제라는 것만 가지고도 힘겨운데 거기다 여성문제까지 안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여성쪽에서도 장애인쪽에서도 침묵해 왔다. 여성장애인 스스로도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지 못했다. 그러다 올해 한국여성 NGO(비정부기구)위원회에 장애인분과가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여성장애우분과가 마련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여성장애인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문제로 공청회를 열어 그 해결방법을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 것은 한보를 내디딘 환영할 만한 일이다.

2. 여성장애인의 현실

최근 장애인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있지만 여성장애인의 현실 또한 그 조사에 의존해서 살펴볼 수 밖에 없다.

1990년에 발표된 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하면 장애인 인구 937,225명 가운데 남자가 525,852명(56%), 여자가 411,372명(44%)으로 남과 여의 동비(同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다.

그런데 최초의 장애인 실태조사인 1980년 자료(한국보건개발연구원, 심신장애자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장애인구 902,000명 가운데 남자가 63.8%를 차지해 장애여성인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은 여성장애인 인구가 늘어났다고 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1990년 보고서에 의하면 여러 면에서 여성장애인들이 낙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교육면에서 볼 때,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무학 상태가 남자는 18.3%인 것에 비해 여자는

42.7%나 되어 여성장애인들이 더욱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면은 성별조사가 되어있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를 발표할 수는 없지만 성별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성장애인의 취업상태가 미미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결혼면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견 때문에 결혼이 어렵다고 답변한 경우가 남자는 44%, 여자는 51%였다(1989.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미혼장애인의 결혼의식조사).

이번에는 여성장애인의 현실을 신문기사를 통해 살펴 보기로 한다.

소아마비 어린 딸을 학대한다는 기사가 1986년(6. 22 조선일보)에 실렸었다.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한 5세된 딸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베란다에 내놓고 걸핏하면 매질을 하는 등 학대가 심해 주민들이 고발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1988년(12. 22 동아일보)에는 '정박여아 길에 버려'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다.

그리고 1989년(12. 29 한국일보)에는 취직을 거절당한 장애처녀가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다. 21세의 뇌성마비 처녀가 여러 기업체에 원서를 냈으나 응시자격조차 주지 않자 9층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을 해 사회의 냉대를 고발했다.

또 1990년(7. 30 한국일보)에는 사귀던 장애여성이 결혼하자 강제 폭행하고 남편에게 돈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고, 정신지체소녀를 임신시킨 후 생매장시킨 사건도 있었다(90. 10. 10 한국일보). 그리고 또 장애인 여승객을 운전기사가 성폭행한 일도 있었다(91. 3. 7 동아일보). 이렇게 장애여성들은 성폭행의 대상이 되었다.

92년(3. 8. 경향신문)에는 장애여성이 임신 8개월인 동생을 독살한 사건이 터졌는데, 그 살인 동기는 가족들의 편에 양심을 품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살인 미수로 그쳤지만 가정 내에서의 장애여성의 핍박을 짐작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94년(1. 4. 한국일보)에는 장애여성이 주부로서 겪는 아픔을 알 수 있는 기사가 실렸다. 장애를 가진 아내를 차로 치어 살해한 후 허위 신고를 하고 아내의 눈과 신장까지 기증한 잔악한 사건이었다. 몇 안되는 사건의 나열이지만 장애여성들의 현실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3.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을 설명하기 위해 장애여성이 등장하는 소설을 인용해 보고자 한다.

김동인의 소설 '광화사'에 맹인 처녀가 등장하는데 그녀는 학대의 대상이었다. 구박에 못이겨 가출을 해서 화가를 만나지만 화가는 그녀를 예술의 도구로써의 가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범선의 소설 '피해자'에서는 딸이 소아마비에 걸린 것을 죄의 댓가로 생각하고 있었고, 김동리의 소설 '무녀도'에서도 역시 딸 낭이의 청각장애를 신의 저주라고 했다.

강경애의 소설 '지하촌'에 나오는 큰년이라는 맹인소녀는 허드렛 일만 하다가 첩으로 팔려가고, 임옥인의 소설 '구혼'에서도 정애라는 장애여성이 사랑의 구혼을 거절하는데 그것은 남자의 사랑이 식을 것이라는 염려 때문으로 설정되어 장애여성은 정상적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그리고 있다.

그럼 여기서 계몽목의 '백치 아다다'와 나도향의 '병어리 삼룡'이란 소설을 놓고 장애인 여성과 남성

의 차별을 분석해 보기로 하자.

‘백치 아다다’의 아다다는 청각장애 여성이고 ‘병어리 삼룡이’의 삼룡이는 청각장애 남성이다.

청각장애는 같고 그들이 학대를 받고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아다다와 삼룡이가 결코 같은 수준에 있지는 않다.

아다다는 논을 주어 시집을 보내지만 결국 남편한테 버림을 받고 노총각 수룡이를 만나 진정으로 사랑을 받게 된다. 하지만 삼룡이는 비록 머슴이지만 주인 마님을 사랑하게 된다. 다시말해 삼룡이는 감히 주인 마님을 넘보는 상송할 수 있는 여지를 시사하고 있지만 아다다는 신분의 상승이 아닌 같은 수준의 사랑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것으로 같은 장애인이지만 남성이 훨씬 우위에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근대나 현대소설에서 뿐만 아니라 최근 소설에서는 장애인은 여전히 약자로 표현되고 있다. 소설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기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소설 속에서 여성장애인이 받고 있는 인식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다.

4. 세계적인 추세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에 비해 차별적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다. 그래서 UN에서 1980년에 개최한 여성을 위한 10년 세계회의에서 여성장애인의 상황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제안이 있었다.

-남녀 장애인은 일반적, 직업적, 훈련 및 고용을 포함하여 품위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모든 연령의 장애여성은 개인의 능력과 기술을 최대로 개발하고 가능한 자립적이며 또한 사회생활에 완전히 참가하는데 특별한 곤란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장애여성을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으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

그리고 세계 장애인의 해(1981년)에는 장애여성의 특별한 욕구를 명백하게 고려할 것을 요청하는 제안이 있었다.

- 여성장애인에 대해 적절한 원조, 보호 및 지도를 포함하여 일반적, 직업적, 보건상의 교육을 실시한다.

- 여성장애인이 비전통적인 직업을 포함하여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업기술과 훈련시설의 규모를 확대한다.

- 장애를 가진 어머니가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적, 재정적 지원과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 장애여성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일반여성단체 참가, 모든 수준의 자조운동에 참여, 적극적인 정치 참여 등 다양한 수단들을 제공한다.

이런 선언 뿐만이 아니라 국제회의에서도 여성장애인 문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있었다.

1986년 10월 11일~15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아시아·태평양 DPI세미나에서 장애를 가진 여성의 문제가 진지하게 다뤄졌는데 그 주요 내용은 장애여성의 교육, 고용, 결혼, 양육에 대한 어려움이였다.

그리고 1987년 6월 2일~5일 태국의 방콕에서 개최되었던 UN장애인 10년(1983~1992) 성과의 중간

점검을 위한 지역전문가 세미나에서 캐나다의 Dudley씨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장애인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여성들이 남성장애인에 비해 더 적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1990년 8월 20일~24일 비엔나에서 개최된 DPI세계회의에서도 장애여성이 주제였다. 이 세미나에서는 장애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그 방안을 제시했다.

1)만족한 정보 2)윤리와 인간의 권리 3)국가법률 4)회의 및 다른 국제법 기구 5) 장애여성에 대한 국가적 관점 6)교육 7)직업 훈련과 고용 8)결혼과 양육 9)폭력, 성남용 10)대중매체이용 11)상담 12)사회보장 13)건강 14)공공건물과 주택 15) 대중교통 16)원조 17)조사 18)기금 19)지역활동 20)국제적 관점

5. 제안

여성장애인 문제를 해결하면 장애인 문제는 완전히 없어진다.

하지만 우리는 장애인 문제도 산적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성장애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발전적인 방향을 잡아보는 것은 필요하다.

첫째, 여성장애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인정하고 그 능력을 개발시켜 나가 사회에 이바지하도록 한다.

둘째, 여성장애인이 갖고 있는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서 그에 맞는 시설을 마련한다.

셋째, 여성장애인만의 공간, 즉 주방의 구조를 편리하게 개조시킨다.

넷째, 여성장애인의 성을 인정하여 아기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등의 의문을 갖지 않는다.

다섯째, 여성장애인이 모든 면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9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자립의 정도를 알아보는 설문에 남의 도움이 필요없다는 답변이 남성장애인이 51.0%, 여성장애인이 49.9%였다.

여성장애인의 자립 정도가 조금 낮은 편인데 우리의 현실은 여성장애인을 위한 그 어떤 배려도 해주고 있지 않다.

앞으로 모든 정책이 입안될 때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장애인 문제가 심각한 것은 후진적인 모습이다. 거기다 여성장애인들이 차별을 받는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장애인 게다가 여성의 인권 신장이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임을 알아야 한다.

이런 수치적 상황이 빨리 개선되기를 바란다.

◆ 토론발제

실태조사를 통해 본 여성장애우의 차별양상

김미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장애우분과 회원)

실태조사를 통해 본 여성장애인의 차별 양상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장애우분과 김미연

1. 들어가는 말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관습 구조를 가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력이 손상당했다는 편견 속에 사는 우리 사회의 여성장애인들은 여성과 장애의 이중고로 교육, 취업, 결혼, 출산 그리고 자녀 양육 등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장애인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 조차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으며 현황 파악을 위한 변별한 실태조사도 없었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도 없었다. 마찬가지로 여성장애인의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의 차별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대안에 이르기까지, 또는 여성장애인의 인권문제에 대한 의식이 사회에 제대로 인식되어진 적도 없다.

이에 한국여성NGO위원회 장애인분과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장애우분과에서는 한국 여성장애인의 인권과 소외의 심각성을 알리고 같은 입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전 세계의 여성들과 함께 세계적 차원의 공동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의 한 노력으로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12일 까지 북경에서 열리는 세계여성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보고할 한국의 여성장애인의 실태와 이에 대한 대안 제시 등에 관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보고서 준비와 여성장애인문제의 사회화를 위해 우리 분과는 지난 3월 7일부터 28일까지 여성장애인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설문조사를 실시, 여성장애인들의 교육, 결혼, 고용 그리고 의료 등에 관련된 기본적인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여성장애인은 만 15세에서 78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지체장애인 52명(43%), 시각장애인 19명(15%), 청각장애인 35명(28%), 정신지체인 6명(5%), 기타 왜소증이나 척추장애인 7명(5.8%)등 총 121명이었다. 이들은 서울 57명(47.1%)과 광역시 17명(14%), 그리고 시 22명(18.2%) 등 대부분이 도시에 살고 여성들이었다.

2. 교육현황

이들의 교육현황은 중졸 이하가 44.7%였으며 교육 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장애인이 11.6%에 이르러 낮은 교육율을 나타냈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특수학교 출신이 33.3%,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 3.3%로 집계되어 대부분 통합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설문에 응한 시각장애인(78.9%)과 청각장애인(51.4%)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출신인 것으로 조사돼, 통합교육의 대상은 지체장애에 한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지 못한 이유로, 장애 때문이라고 답한 사람이 30%, 장애로 인해 이동 및 교통시설 이용하기가 불편해서가 16%로 결국 장애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주목할 내용은 부모나 친권자의 반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도 7%나 돼 여성장애인의 교육기회가 오히려 부모나 친지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응답자 중 한 청각장애여성은 자신이 교육을받지 못한 이유로 자신이 성장한 곳에 청각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없었다는 것과 부모가 특수학교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고 서술했다. 그리고 여러 번의 수술 등으로 학령기를 놓쳐 교육을 받지 못한 3명의 지체장애여성들의 예는 교육과 재활치료가 효율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3. 결혼현황

설문에 응한 121명의 여성 중 결혼 적령기인 25세 이상을 넘긴 여성이 81명임에도 불구하고 미혼자가 73.7%로 나타나 매우 낮은 결혼율을 나타냈다. 그런데 기혼자 중 85%가 장애를 가진 남자와 결혼했으며 특히 시각장애인이거나 청각장애인의 경우 모두 같은 유형의 장애인과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에 볼 수 있듯이 장애유형별 결혼의 여부에서는 시각이나 청각장애여성의 결혼율이 지체장애나 정신지체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장애유형별 결혼 여부

장애종류	(단위:%)		
	결혼	미혼	무효
지체	11.5	84.6	3.8
시각	47.4	47.4	5.2
청각	48.6	51.4	
정신지체	16.7	66.7	17.6
기타(중복·척추·왜소)		100	

그리고 <표 2>와 같이 최종학력에 따른 결혼여부는 국졸의 경우 결혼 36.4%, 고졸의 경우 결혼 24.6%, 대졸의 경우 결혼 7.7%로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높은 여성장애인일수록 자신의 기대치에 맞는 상대방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2> 최종학력에 따른 결혼 여부

(단위 : %)

학력	결혼	미혼	무효
국졸	36.4	45.5	18.1
중졸	20	73.3	6.7
고졸	24.6	73.8	1.6
대졸	7.7	92.3	2

한편 기혼자 중 11명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 시각여성장애인이었다. 이로 인해 시각여성장애인들은 집안의 경제와 가사를 함께 책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하지 않은 이유로 <표 3>과 같이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모든 여성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해 결혼하지 않았거나 스스로 포기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3> 장애유형별 결혼하지 않은 이유

장애유형	나이	장애	경제	학력	이동권	기타	무효
지체	32.7	12	1.9	1.9	7.7	11.5	23.1
시각	15.8				26.3	57.9	
청각	11.4	20	8.6	2.9		8.6	48.6
정신지체			50	50			
기타	42.9	14.3	14.3			14.3	14.3

또한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지체장애여성의 32.7%가 나이가 아직 결혼할 때가 아니라고 답한 경우 이들의 나이가 결혼적령기인 25세 이상이 70%였음을 감안한다면 지체여성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결혼적령기는 20대후반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각과 청각장애인의 경우가 지체나 기타의 여성장애인보다 결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자들의 결혼생활의 어려운 점을 서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시각장애여성의 경우 다급한 경우 집 안에서 길을 찾거나 외출시 장을 볼 때 그리고 청각장애여성의 경우 열악한 경제사정이나 아이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어 아이가 아파도 잘 모를때, 같은 청각장애인과 결혼해도 상대방의 의사를 정확히 알지 못해 오는 갈등등 등과 같은 내용을 통해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엿 볼 수 있었다.

한편 미혼의 경우에 한해서 성격협이 여부에 대한 질문을 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답변자들의 회피로 명확한 실태를 알아 낼 수 없었다.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를 장애때문이 49%, 장애로 인한 이동의 불편 등으로 교제의 기회가 없어서가 7%, 경제적 이유가 19%, 학력이 낮아서가 10% 나이때문이 15%로 나타나 결국 장애로 인해 장애여성 당사자가 스스로 결혼을 회피하거나 결혼에 관심이 있어도 이동권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4. 고용현황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업의 경험이 있거나 취업한 경우가 37.2%에 그쳐 여성장애인 대부분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장애유형별 취업을 하게 된 계기

장애유형	친지소개	공단	유관기관	입사시험	미취업
지체	21.2	0	3.8	1.9	68.9
시각	26.3	5.3	0	0	69.4
청각	20	0	8.6	2.9	69.5
정신지체	0	0	0	0	100
기타	0	42.9	0	0	57.1%

<표 4>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이 취업을 하게 된 계기는 대부분 친지에게 대부분 의존하고 정작 장애인 취업 전담기관인 공단에 의한 취업률은 극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장애인은 단순생산직에 머물고 있으며 설문에 응한 시각장애여성은 대부분 안마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또한 국민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직업을 가진 경우가 36.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졸의 경우 직업을 가진 경우가 69.2%로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을 가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산직에 종사하는 여성장애인의 월평균 수입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3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직 역시 월평균 수입이 52만원으로 열악한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주로 안마업종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여성들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80만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을 하지 못한 이유로 장애가 16.5%, 학력이 낮아서가 10%,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가 15.7%, 장애로 인해 이동이 불편해서가 10.8%로 나타나 결국 장애로 인해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이로 인해 직업을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의료상황

이번 설문에서 71.2% 해당되는 여성장애인이 재활 치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경우 나올 가망이 없기 때문에 치료를 포기했고 다른 유형의 여성장애인은 경제적 사정(14%), 부모의 관심부족(10%), 교통시설의 이용 불편(5%), 등으로 치료를 많이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체장애인은 성장기에 여러 번 수술을 경험하고 있으며 재활치료에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6. 맺는말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들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의 굴레로 인해 교육, 취업, 결혼 등 전반적인 사회활동에서 소외되어 대부분 자신의 영역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말하자면 장애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하고 또한 교육받지 못한 장애인은 취업의 기회도 갖지 못하고 따라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등 여성장애인의 소외현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다른 부분에서까지 소외현상을 야기시키고 있었다. 문제의 심각성은 부모의 반대로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7%나 나타나 부모와 가족에게서 조차 교육받을 기본권이 무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장기 때의 교육기회의 부족은 친구를 사귄 기회를 부족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나 성장기 때의 또래 집단과의 교제를 가지지 못한 것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영향을 미쳐 이성교제나 직장생활 등에 두려움으로 변해 여성 장애인 스스로 자신을 사회로부터 소외시키는 현상을 보였다.

또한 이동권의 제약으로 인해 당사자가 원해도 교육, 결혼, 취업 등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는 조사원 대부분이 서울에 살면서 직장을 가지고 있고 조사대상의 범위 또한 서울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으며 설문에 응한 당사자들이 다양한 장애유형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설문의 내용이 각 장애유형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이다. 그리고 설문에 응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재가장애여성이나 시설의 여성장애인은 설문에서 제외돼 실상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밝힌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조사를 여성장애인 문제에 대해 탐색적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조사라는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향후 이 조사를 토대로 앞으로 장애유형별, 연령, 그리고 주제를 가진 전문적이고 정확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 여성장애인에 적절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할 것을 밝힌다.

성폭력과 여성장애우

박숙경(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도개선 담당)

1. 서 론

세계형사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범죄율은 세계 3위이다.

특히 성폭력의 대표적인 유형인 강간에 대한 검찰의 집계에 따르면 80년에는 연간 5천6백14건이던 것이 89년에는 6천4백75건, 90년에는 7천3백22건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발생빈도에 비하여 신고율이 2.2%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성폭력범죄의 실상은 한층 더 심각함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우기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이라 볼 수 있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실상은 신체적 장애로 항거할 수 없거나 경제적 이유 또는 부정적 사회인식으로 인해 별다른 대응력을 갖지 못하고 있어 한층 더 심각한 양상을 띄고 있다.

각종 범죄를 비롯하여 모든 사회현상은 사회전반의 인식·정치·경제·문화적 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엄격한 가부장제적 자본주의사회인 우리사회에서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돕기 위해 여성과 성폭력과 관계의 사회구조를 염두에 두고 살피고 이를 통한 올바른 이해를 전제로 하여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실태·범죄양상을 재가시설보호 장애인으로 나누어 살피고 문제점을 점검하기로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한 법률·제도적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점을 「성폭력특별법」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마지막 결론부분에서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성장애인 스스로와 국가 및 사회단체의 역할,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는 순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 글은 지난 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개최된 “장애인 인권 어디까지?” 중 「성폭력과 여성장애인의 인권」 편 정책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참고로 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2. 성폭력의 개념 및 특성

1)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일반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넓은 개념을 가진 용어로, 성을 매개로 하여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신체적 폭력 뿐만이 아니라 음란전화·성희롱 등의 언어적 폭력, 사무 실에 나체포스터 등을 붙여놓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가하는 정신적 폭력에 이르기

까지 성을 매개로 하여 타인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에 있어서 성폭력의 문제를 다룰때도 강간, 강제추행에 국한하지 않고 이와같은 폭넓은 개념에 비추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성폭력의 특성

성폭력의 기본적인 특성에 있어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성폭력은 단순한 성적욕구 해소를 위한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힘의 관계가 내포되어있는 문제란 것이다.

즉, 성폭력은 사회적 또는 신체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자가 자신보다 열등한 사회적 위치 및 신체적 입지에 있는 자에게 폭력을 가함으로써 자신의 우월한 입지를 확인하고 그 위치를 고수해 나가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성우월주의의 기본 이데올로기를 취하고 있는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성폭력의 피해자는 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일 수 밖에 없으며 장애인의 경우는 더욱 빈번히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3. 성폭력의 사회구조적 요인

우리 사회는 오랜 전통을 지닌 남성의 지배와 우월성, 여성의 복종과 열등성을 믿고 정당화해 온 가부장제의 기본적인 사회구조에 자유시장 경제 속에서 최대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가 결합한 「가부장제 자본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구조를 염두에 두고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요인을 점검해 보기로 한다.

1) 가부장제의 성적 종속관계

가부장제 문화가 보편적으로 지니는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남성중심적이며, 둘째 남성이 여성에 비해 우월한 존재라는 가치평가, 셋째 남성세계와 여성세계의 분리로 남성에 의한 여성지배의 구조가 재생산되는 점 등을 들수 있다.

즉, 남성이 여성에 비해 월등한 존재가 되어 여성은 남성에 의해 종속되어지며 가치평가된다. 쉽게 단순한 성적유희의 대상 또는 남성의 사유재산을 상속할 후계자를 낳는 대상으로 전락해 온 것이다.

특히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적 대상 또는 성폭력의 피해자의 입장에 놓여지는 여성의 경우는 주로 종속적인 관계에 놓여져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력을 갖는 데 많은 장애를 겪게 된다.

또한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남성주도적 가정을 이루기 위해 파생된 "정조관"에 의해 성폭력의 대상이 된 여성은 폭력의 피해자로 보기 이전에 정조를 잃은 여성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이로인해 피해여성은 자신의 문제를 외부에 노출시키거나 법적 보호를 요청하는 데 극히 소극적이다. 때문에 가부장제사회 속에서의 성폭력은 발생 빈도의 빈범함과 폭력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은폐되어지고 매우 음성적인 성향을 띌 수 밖에 없다.

2) 자본주의체제에 의한 성의 상품화

해방 이후 뿌리깊은 가부장제적 전통 위에서 자본주의의 도입은 대량적인 여성의 상품화를 초래하였다.

자본주의의 속성은 대량생산한 상품(물품과 서비스)의 판매를 통한 이윤추구이며 이 과정에서 여성의 성도 상품화된 것이다.

그냥 자본주의 사회라면 남성의 성도 상품화하겠지만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남성의 성에 비해 여성의 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상품화된다.

우리사회는 1980년대 중반부터 향락산업이 급격히 번창하여 최근에는 전국에 45만개에 이르게 되었고 이들 업체의 연간 매출액은 약 4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 일년 전체 사회복지예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3)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을 수 없는 여성

성적 분업에 기초한 사회구조하에서 주체적인 노동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여성들은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의 기회를 제한당하거나 동일한 직종에 있어서조차도 남성들의 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라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져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신체적으로 열등한 근로조건을 가진 여성장애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훨씬 더 심각하다.

따라서 경제적 위치에 있어서조차 여성은 스스로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므로 결혼에 의해 남성에 의존하는 생존방식을 자연스럽게 선호하여 결국 “여자 팔자 뒤옹박 팔자”라는 논리를 스스로에게 적용시키려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장애인의 경우는 결혼을 통한 생존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4. 성폭력에 대한 법률 제도적 보호

(1) 성폭력을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

성폭력에 대한 관련법은 지난 '94년에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실제법상에 있어서 형법, 경범죄 처벌법, 아동복지법,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등에 분산되어져 있는 각 관련 규정 등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형법 및 이들 관련 법규는 모두 성폭력에 관한 죄를 폭력으로 보지 않고 가부장제 속에서의 남성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한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하고 있어 매우 큰 문제를 안고 있다(형법 제 32장 ‘정조에 관한 죄’로 명기).

즉, 이들 법에 의해서 보호되어지는 것은 여성의 인격이나 성적 자유결정권이 아니라 여성의 정조이며, 여성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기 보다 성적 객체로 대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이들 법은 피해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여성들이 입을 피해를 막고 여성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강간강제추행을 고소기간 6개월의 친고죄로 규정해 왔으나, 실제로는 오히려 피해사실을 한층 더 은폐시키거나 가해자들이 이를 역이용하여 성폭력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져 왔다.

(2) 성폭력 특별법의 제정

따라서 이러한 시각을 전환하여 성폭력을 폭력에 관한 범죄로 보고, 보다 다양하고 포괄적인 내용의 독립된 법규범의 필요가 제기되어졌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성폭력 특별법 제정운동이 전개됐다.

1990년부터 한국 여성의 전화에 의해 시작, 4년간의 제정운동을 통해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법적보호내용보다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여전히 성폭력을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친고죄의 유지, 성폭력의 범죄구성요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행동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점, 범죄유형에 있어 성희롱 등 여러가지가 누락되어 있는 점, 그리고 수사·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흡한 점 등의 문제점을 안고있어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개정운동이 필요한 실정이다.

(3) 여성장애인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특별법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팔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성폭력 등에 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8조(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에서는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게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 217조(강간) 또는 제 2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 장애인에 대하여는 보다 준엄한 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별다른 정책적 배려가 전무했던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여성장애인에 대한 국가사회적 관심의 첫 행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띤다.

그러나, 동 조항은 의사 및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는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명문화하여 밝히고 있지 않고 있는 점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특례조치, 의사능력이 없는 어린이나 장애인을 위한 「피해자 대리인 제도 등」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미비되어 있다는 점에서 역시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장애인단체 및 여성장애인 스스로는 이러한 법적 실효성 담보를 위한 지속적인 운동을 벌여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5.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실태

1)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문제 제기

유엔의 자료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 2억 5천만명 이상의 여성장애인이 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 장애인의 4분의 3은 여성이고 아시아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체장애인을 400만으로 볼 때 약 300만명이 여성인 것이다.

이렇게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장애인은 성과 장애여부의 두가지 차별기제로 작용하는 독립변수를 동시에 지니고 있음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있어 이중고(二重苦)를 겪는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

이러한 사실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실태에서 단적으로 입증된다.